

오늘의 기사판

오늘 (7일)
▲제 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오전 10시 광주시 영주실내체육관. 광주지역 사회복지 담당자 및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1천200여명 참석 예정. 오전 10시 30분 목포 실내체육관.
▲2006 광주비엔날레 전야제=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분수광장. 버스바우 주한미대사, 도올 김용옥 선생 등이 참석 예정으로,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주제로 '텃밭과쉬', '동요나라 노래전사', 태진아, 신효범, 서영은, 김현정 등이 출연.
▲상생협력 지역순회 토론회=오후 2시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대회의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사회로 상생협력방안 토론회.
▲제 28회 서남권 아카데미=오후 3시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노혜진 줄리엣 카운셀링센터 원장이 '성격 좋은 아이는 부모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강연.
(8일)
▲2006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중앙공원.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치안현황과 경제비용'에 관해 강연.
▲제 123회 강진 다산강좌=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 김철중 재정경제부 특무운영 1과 사무관이 '특구와 브랜드'라는 주제로 강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총정·호남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순회 설명회=오후 2시 담양군 문화회관. 행정자치부 박재영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 등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계획 및 균형발전 추진계획 체계 개편에 따른 협조 사항 전달.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회의=8일 오전 9시 영암군 목포현대호텔. 청소년 흡스데이·관광·치어방류 등 수상교류 등 공동교류사업 추진 방안 협의 및 엑스포 유치 지지 등 논의.
▲전남도 친환경 5개년 계획안 공청회=오후 2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진도개 발전연합회 발대식=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소회의실.
▲김홍석 독창회=7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비몽' '청산에 살리라' '눈마을' '가시꽃 사랑' '그대 창밖에서' 등 공연.
▲문명자 명창 가이금 병창공연=7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계림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8일(금)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가족 뮤지컬 '빨간 모자와 늑대'=7~8일 오전 10시, 11시 1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제 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오전 10시 광주시 영주실내체육관
시 영암군 목포현대호텔. 청소년 흡스데이·관광·치어방류 등 수상교류 등 공동교류사업 추진 방안 협의 및 엑스포 유치 지지 등 논의.
▲전남도 친환경 5개년 계획안 공청회=오후 2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진도개 발전연합회 발대식=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소회의실.
▲김홍석 독창회=7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비몽' '청산에 살리라' '눈마을' '가시꽃 사랑' '그대 창밖에서' 등 공연.
▲문명자 명창 가이금 병창공연=7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계림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8일(금)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가족 뮤지컬 '빨간 모자와 늑대'=7~8일 오전 10시, 11시 1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

▲김홍석 독창회=7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비몽' '청산에 살리라' '눈마을' '가시꽃 사랑' '그대 창밖에서' 등 공연.
▲문명자 명창 가이금 병창공연=7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계림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8일(금)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가족 뮤지컬 '빨간 모자와 늑대'=7~8일 오전 10시, 11시 1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전시

▲조강현 개인전=13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전남중등미술교류전=13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창목회전=13일까지 상계갤러리.
▲2006년 세계농아인 미술교류전=20일까지 국제농아인미술협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미술 오케스트라'=10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천연염색 국제전=12일까지 구 전남도청 전시장. 한국 28명·대만 4명·일본 1명 등 작가 33명이 출품한 섬유 미술작품과 문화관광상품 등 60여점 전시.
▲호예도회 회원전=11일까지 무등예술관. 전통도자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생활도자기와 도자편들을 이용한 설치작품 등 30여점 전시.
▲오픈 스튜디오=11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타향속에 삶예술=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몽당연필전=11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가족공예 단체전=14일까지 일곡 갤러리.
▲백담 무비천 해강스님 원국학 미술 특별전=20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뉴스퀴즈

28.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이 사람을 내정했습니다. 전임 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난달 7일 공식 사퇴한 지 25일 만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6번째 교육부 총리가 될 충북 청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누구일까요?

① 김신일 ② 김병준 ③ 이돈희 ④ 이해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터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보석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첫 만남에서는 첫사랑보다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라. 발걸음 차인 풀처럼 잊혀지지 말고 예뻐 얻은 보석처럼 가슴에 남아라"
어느 책에다가 읽었던 이 글귀는 정말 강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고 지금도 남녀간 첫만남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주고 싶다.
사람의 만남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물며 남녀간의 첫만남에서의 첫인상은 연애기간 내내, 그리고 결혼 후 함께 살면서도 매우 중요한 상대의 기본 이미지로 머리 속에 남아있게 된다.
"첫인상은 마지막 인상이다"라는 서양속담이 이를 잘 말해준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받은 인상이 머리 속에서 평생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근본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가.

사회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첫인상이 좋으면 쉽고 편하게 생각되며 다음 번에 또 만나고 싶은 여운을 남기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마음에 들어오기도 전에 머리에서부터 서서히 잊혀져 가는 '스쳐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첫인상은 매우 짧은 순간, 길어야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한다. 타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매력이나 호감도, 신뢰도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것이다.
사실 외모와 성격은 그리 관련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상대와 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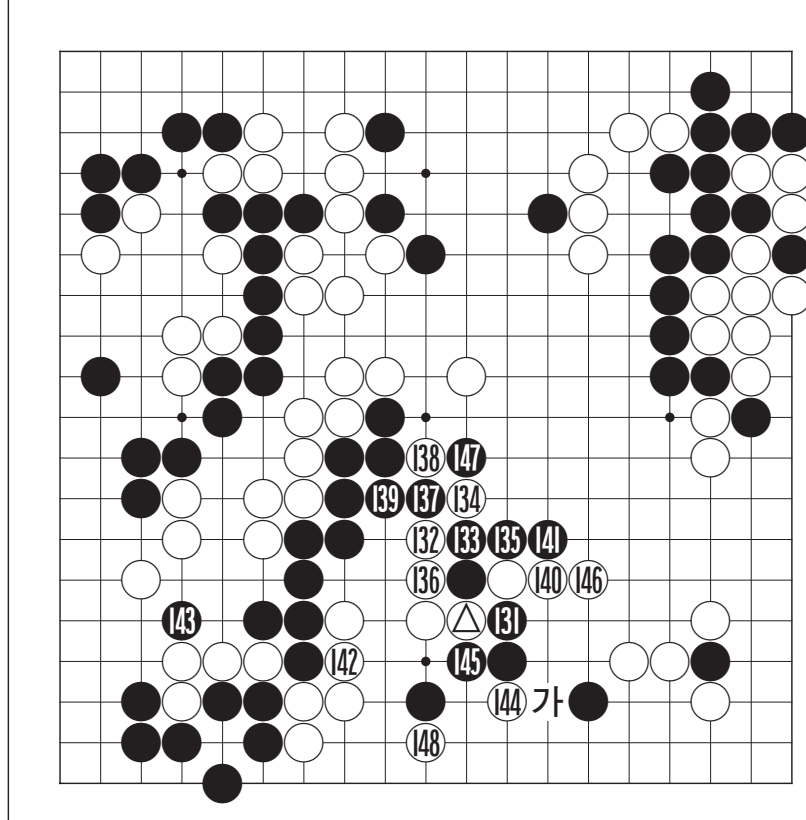
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예쁘게 생각하고 잘 생긴 생각, 흔히 말하는 '미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환한 표정과 미소, 자연스럽고 세련된 제스처, 상냥한 목소리와 말투 등과 세련되고 단정하면서도 개성이 느껴지는 옷 매무새, 거가다 대화 중에 보여지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 등이 모두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한 가지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하는 것을 고민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상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는 것이다.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내면의 충실하고 멋스러움이 외면으로 느껴지고 거가다 외면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자.
스스로 든사람, 난사람, 편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웃기는 사람이라도 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권선트>

헤어질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마디 나눠보지 않고 그들의 성격을 재빨리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 대면의 순간 0.1초야말로 맞선이나 면접, 그밖에 중요한 만남에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이 된다는 얘기가.
물론 대화를 해나가면서 차차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는 작전이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첫인상에서 결정된 상대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거나 많은 부분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석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이 강렬한 인상



실패한 공작 제8보(131~148)
백 허우석 5단 <광주광역시청A>
흑 이강민 5단 <PCA생명>
백 △가 허 5단이 노리던 필살의 승부처다. 이곳에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패배가 굳어지며 만약 크게 수가 난다면 형세역전이다. 이 5단은 137로 똑딱 끊어 끝장을 보자고 한다. 이때 조위기에 몰린 허 5단은 138로 몰고 140에 늘었는데, 이 수가 흑 141과 교환되어 대약수였다. 142에 이었으나 흑 143으로 백 4점이 잡히고 말았다. 140으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먼저 붙여 아래쪽 끊어지는 약점을 보강할 자리로 5까지 선수한 다음 7로 왼쪽 백 4점을 살리고 보아야 했다. 그러면 흑은 8로 나가야 되는데 13까지 붙어막고 수상전을 노려야 했다. 이 결과는 흑 24까지 비기는 패가 나게 되어 백에게 기회가 있었다. 긴장이 풀렸는지 이 5단은 147로 잡고 말았는데 이 수로는 '가'에 보강할 자리. 148이 매서운 추궁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국 7명, 삼성화재배 16강
이창호, 이세돌, 박영훈 9단 등 한국 대표 7명이 6일 삼성화재연수원에서 열린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16강에 진출했다.
이창호 9단은 중국의 후아오위 9단에게 104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고, 이세돌 9단은 중국의 관웨이징 초단을 백 11집 반으로 따돌렸다.
박영훈 9단, 서봉수 9단, 최철한 9단, 고근대 5단, 백홍석 4단도 32강을 통과했다. 반면 조훈현 9단, 안달훈 7단, 김형우 초단, 강동운 5단, 유창혁 9단 등 10명은 32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강전은 8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회 우승상금은 2억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What really annoyed me was ~), Korean (それは、むこうみずってもんよ), Japanese (我妻存銭), and Chinese (合從連衡). Each column contains text and a small illustration related to the topic.